

지역이 미래이자 희망이다

이원종 _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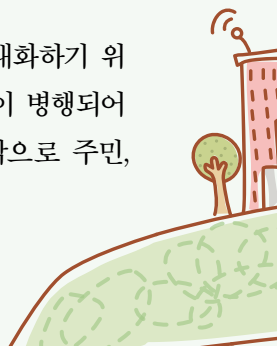
창의와 혁신에 토대를 둔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의 창조적 역량과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세계의 각 지역들은 창조적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교우위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역주도로 관련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에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 주민이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는 한편, 지역별 비교우위의 특화산업을 창조적 관점에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생활권사업, 지역의 비교우위 장점을 살려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 특화발전사업, 농촌 오지마을과 도시 달동네 등 취약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핵심적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지자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정책 조정 및 협업을 촉진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정책이 가속도를 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적 역할과 창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역발전의 주역이라는 생각으로 주민,



지자체, 지역연구소, 대학 등이 서로 힘을 모아 노력할 때, 성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든 지역발전정책을 고려할 때, 충남연구원과 같이 전국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역연구원들이 여건과 특성을 살려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창조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는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 사업을 고민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충청남도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정책들을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기획,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제안하는 일명 ‘역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제 차등화 방안, 역간척을 통한 하구생태 복원,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과정에서 충남연구원은 정책의 논리 개발은 물론 실제적으

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의 싱크탱크로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이 미래이자 곧 희망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민이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주체들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을 통해 그 요구에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희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충청남도를 포함한 전국토가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가 되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충남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가기를 기대합니다. ◀

